

# 기발·참신 재소자들의 창업 아이템

‘참살이 김치공장’ ‘고객중심 이벤트 푸드 전문점’ ‘노인전용 PC방’, 창업지원센터가 내놓은 창업 아이디어가 아니다.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대표들이 내놓은 ‘출소 후 창업청사진’이다.

광주지방교정청은 16일 오후 광주교도소 교회당에서 ‘제1회 수형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가졌다. 재소자들의 창업발표회는 전국에서 처음 열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다.

이날 출정한 재소자는 모두 6명. 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장흥 교도소 별로 이달 초 치열한 예선을 거쳐 교도소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경진대회는 광주교도소 기결수 300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열렸고, 심사는 광주시 북구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전문위원 3명이 맡았다.

재소자들의 창업아이템 발표는 어느 기업체 제품시연 발표처럼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방식으로 10분씩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각 교도소에서 전문 창업 강사의 창업 지원교육을 받은

## 광주지방교정청 전국 첫 경진대회 열어 노인 PC방·목 음식점 등 아이디어 눈길

뒤 직접 창업아이템을 구상, 자료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창업아이템은 ‘디지털 제작 전문점’을 비롯한 ▲참살이 김치공장 ▲고객 중심 EVENT FOOD 배달 전문점 ▲한국인이 먹 는 이탈리아식 ‘딤섬’(Dimsum·중

국식 만두) ▲노인 전용 PC게임방 ▲목 잔치(전통음식) 등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목 잔치’ 창업아이템을 발표한 목포교도소 재소자 K(44)씨는 “전통 음식인 목을 사용하면 사업성이 충분하다. 다만 ‘짜퐁 전통 음식’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며 “내년에 출시하면 이 아이템을 활용,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전용 PC게임방’ 아이템을 내놓은 군산교도소 재소자 H(49)씨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여가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PC게임방을 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처럼 만든다면 사업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창업아이템 발표가 끝난 뒤 독창성·전문성·사업성·마케팅 전략 등을 제점해 최종 수상자 3명을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광주교도소 L(38)씨, 우수상은 목포교도소 K(44)씨, 장려상은 전주교도소 K(41)씨가 각각 받았다.

한성주 광주교정청 교육교화과장은 “재소자들도 출소 후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소자들에게 건전한 창업마인드 개발은 물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16일 광주교도소 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수형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참가한 한 재소자가 ‘목 잔치’(전통음식)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사랑의 떡’ 사세로 광주시 북구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는 16일 북구 오치1동 오치농협 앞 길에서 ‘사랑의 떡’ 무공해 비누 판매 행사를 열었다. 판매 수익 전액은 북구장학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광운(왼쪽) 북구청장이 행사장에 들러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제공>

# 광주 김치 年 30만달러 어치 日 수출

## ‘예찬김치’ 공동 브랜드 ‘감칠배기’로 계약 체결

광주지역 김치제조업체인 예찬김치(대표 김영호·60·광산구 임곡동)가 올해부터 연간 30만달러 규모의 배추김치를 일본에 수출한다.

광주시는 16일 “예찬김치가 지난 12월 일본 오사카의 고려무역과 배추김치 수출계약을 체결, 2의 시험판매를 통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찬김치는 ‘감칠배기’라는

광주김치 공동브랜드로 수출계약을 체결해 향후 ‘감칠배기’의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예찬김치는 향후 배추김치 외에 깍두기·갓김치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연간 100만달러 이상으로 수출액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찬김치는 또 조선대와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해 ‘묵은김치 볶음밥’을

개발, 특허등록한데 이어 홍어를 갈아 양념으로 버무린 ‘홍어김치’ ‘홍어보쌈김치’를 개발해 수출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청사진도 갖고 있다.

기 대표는 “내년 광주시 김치타운 입주를 계기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10억원에 불과한 매출을 5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10곳 중 3곳만 제기능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터 10곳 중 단 3곳만 놀이기구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들은 대부분 녹이 슬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고, 완충시설도 불충분해 정거장 관리 및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정환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상임연구원은 광주YMCA가 1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지난 7월 광주시내 5개 구의 어린이공원 3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30대 이상 성인 이용자 175명(남성 47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놀이터 일반사항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그네,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등 10개 부문 8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놀이터 35곳 중 22.9%인 8곳이 놀이기구의 시설이 낙후하고 휘어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0곳(28.6%)만이 제기능을 하고 있었다.

‘놀이터 배수나 쓰레기, 입구 주차상태’가 양호한 곳은 1곳(2.9%)에 불과했으며, 14곳(40%)은 제기능을 하지 못했고 19곳(54.3%)은 보통 수준이었다. 전체의 71.4%인 25곳의 놀이터에는 안전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네 추락자대의 장애물이 있었으며, 충격 완화를 타이어가 파손된 곳도 15곳(42.9%)이나 됐다.

녹이 슬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는 23곳으로 전체의 65.7%에 달했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22곳(62.9%)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장애우 집수리·자선 음악회...

## 광주도시철도공사 다채로운 사랑나눔 행사

광주시 공공기관이 연말 다채로운 봉사활동과 사랑나눔 행사로 소의 계층에게 다가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이하 철도공사)는 17일 오후 4시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희망기우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는 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유길원)와 전남대 음악학과 석학전공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되며, 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불우어린이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선 음악회에서는 새벽이슬 교회가 크로마 하프연주,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들이 오케라를 무대에 올린다.

또 철도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메트로 환경개선 봉사단’은 오는

19일 장애우 보금자리 손질에 나선다. 메트로 환경봉사단은 척추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모씨(52)의 가정을 방문한 뒤 도배·장판 교체, 연탄창고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연말 연시를 맞아 전 역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캐럴을 방송하는 등 경제로 한해를 고통스럽게 보낸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오형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북구 자원 7점 ‘전국 자원 100선’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3회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광주시 북구를 대표하는 유·무형 자원 7점이 ‘전국 우수 지역자원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6개 시·도, 171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북구는 자연경관(용강동 습지와 충효동 왕버들 나무, 무진고성지)과 인공 구조물(환벽당, 국립 5·18 민주묘지), 지역문화(용전 들노래, 짚풀공예체험학습장) 등 3개 분야 7개 작품을 출품해 모두 선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전국 우수 지역자원 100선’ 입선작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록을 발간해 지역자원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신안 압해도 수돗물 15t 긴급 지원

##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기근)는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식수확보가 어려운 신안군 압해도 3개 마을(북룡 2리, 신장 2리, 분매 3리 등) 주민 110여명에게 지난 15일 15t의 수돗물을 긴급 지원했다. <사진>



이날 급수지원에 압해도 인근 목포시 소화전에서 급수차량에 물을 채운 후 압해도로 운송, 각 마을에 설치된 물탱크에 물을 충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압해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수난을 겪고있

는 전라남도 타 지역에도 식수 및 병물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가뭄극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재수생 선행학습반' (Advanced Learning Class for Retake Students) for 1st, 2nd, and 3rd grades. It lists subjects like English, Math, and Korean, and features a grid of photos of the teaching staff.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promoting hearing aids as a 'good investment' to help with hearing los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and Jeonnam is provided.